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나 래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방안 연구

Teaching Methods of Multiculturalism
in Middle School Music Classes

201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나 래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나 래

김나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2011 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의 범위	12
II. 이론적 배경	14
1. 다문화주의	14
2. 다문화 음악교육	17
3.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주의	23
III. 개정 중1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내용 분석	27
1.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 분류	27
2. 활동·이해·생활화 영역의 내용 분석	33
IV. 개정 중1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음악 지도방안	44
1.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의 네 가지 학습모형	44
1) 통합학습 모형	44
2) 맥락학습 모형	45
3) 조사학습 모형	45
4) 정의적 학습모형	46
2. 다문화 음악교육을 적용한 음악수업 지도안	47
1) 일본	48
2) 중국	53
3) 인도네시아	58
V.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5

표 목 차

<표 1>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목록	13
<표 2>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과정	20
<표 3>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	26
<표 4> 제 7차 중학교 음악교과서 아시아 민요 수록곡	27
<표 5>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아시아 민요 수록곡	28
<표 6>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아시아 음악 현황	32
<표 7> 일본 민요 ‘사쿠라’ 수업지도안	51
<표 8> 중국의 극음악 ‘패왕별희’ 수업지도안	54
<표 9>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 수업지도안	58

사 진 목 차

[사진 1] 일본의 전통악기 ‘샤미센’.....	50
[사진 2] 일본의 관악기 샤쿠하치	50
[사진 3] 중국의 경극 ‘패왕별희’	57
[사진 4] 인도의 가플란 합주.....	58

ABSTRACT

Teaching Methods of Multiculturalism in Middle School Music Classes

Na-Rae Kim

Advisor : Prof. Ji-Hyun Kim,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other characteristic of 21st century, named globalization & information age, is multiculturalism. These days, communication channels among nations, groups and individuals are more various and complicated than those in any period. Accelerating acculturation and harmonic phenomenon, they are changing social structure of nation-states and world. If globalization of modern imperial age after 16th century is considered as an other-directed tendency by a national power, recent globalization tends to be a strong voluntary tendency by individual needs. The reality is that the institutionalized communication utilizing Internet and mobile devices promote the transformation to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actively and enthusiastically. In this situation, music has a characteristic to access thoughts and behavior patterns of all the peoples easily and closely. Therefore, by directly experiencing and sympathizing music, education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other cultures, acknowledge different opinions, recognize and accept their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multicultural

society, will be needed.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an alternative of musical educ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excluded from educational, social and political supports in Korean society, so it is examined for Asian music contained in music textbooks for 7th grade on 2007 edition.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is presented to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s examined for purpose and necessity of multicultural musical education.

The finding is that changed contents for each grade are more specific than those in 7th curriculum. Especially, they concretely present music that should be learned for each grade to reflect various music in cultural areas and refer to contents related with other arts to emphasize on various roles and effects of music. However, certain countries' folk songs are so many filled in textbooks or the rate that they are considered as a forbidden song is low.

Therefore, broadly to reflect multiculturalism on music as a curriculum, we will need various learning contents and systematic approaches.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세계화 ·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의 또 다른 이름은 다문화 사회이다. 어느 시대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소통의 경로들은 문화 접변과 융화현상을 가속화하여 세계와 국민국가(nation states)¹⁾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16세기 이후 근대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화가 국가의 힘에 의한 타율적 세계화였다면, 지금의 세계화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 세계화 성격이 강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소통의 일상화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의미의 글로벌 다문화사회로의 전이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용신, 2009: 15).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글로벌 다문화화가 진행되어 총인구 대비 약 2.2%의 인구가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문화국가인 미국의 경우 다인종 · 다종족 비율이 2008년 기준 약 3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제국의 경우 10~13%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대비 평균 디아스포라(Diaspora)²⁾는 약 2.5%이다. 세계적 차원의 다문화화 비율과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이주자의 이주 원인은 주로 노동, 결혼, 탈북 등이며 이들은 이주 원인과 목적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자, 새터민 등으로 불리고 있다(오경석 외, 2007: 198).

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동 양상은 프랑스나 미국 등 다문화 국가가 겪고 있는 인종 간, 종족 간, 계층 간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도래할 수 있음

1)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를 말한다.

2) 팔레스타인 외역(外域)에 거주하는 유대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 '디아스포라'는 이산(離散)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원래 유대인의 민족적 이산(離散) 상황을 뜻하는 용어였지만, 현대에서는 전쟁과 식민지화로 고국을 등져야 했던 난민이나 이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전부터 한민족과 한반도라는 하나의 이념과 장소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유입된다는 것인,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해석 체계의 만남으로 다문화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교육부(2006) 자료에 의하면 이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외모 차이와 언어 미숙으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가 가속되면서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다문화 현상은 미래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김용신, 2009: 16).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그들의 삶과 문화의 이해를 위한 필수 과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간이 동등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음악은 하나의 인간 소통적 체계이다. 음악은 문화적인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음악 문화는 독자적인 음악 체계와 표현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권의 가치와 문화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변계원, 조효임 2009: 22). 따라서 음악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는 음악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의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 민족들 간의 문화 사상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음악을 함께 공부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음악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의 음악들 사이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알게 되어 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각 민족 고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은 학교 음악 수업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이유진, 2010: 10).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 2007 개정 음악교과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그 중 아시아 문화에 대한 경험과 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음악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7 개정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문화권 민요들을 비교 분석하고, 체계적인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수업적용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편견을 줄이고자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음악 교육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를 한다. 2010년 개정 출간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관련 특히 아시아 곡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다문화주의 관점이 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분석하여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다문화주의와, 음악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 민요의 지도 방안에 대한 네 가지 학습모형을 제시한 뒤, 악기와 리듬치기를 통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를 연구 대상 범위로 정했다. 아시아 민요는 제 7차 음악교과서의 출판사별로 중등과정의 각 학년별로 재곡과 분포 비율을 분석한 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지선 2002, 한현희 2003; 설영인 2005).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아시아권 음악을 7학년의 ‘활동’영역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는 7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최종16종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개정판으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9종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는 16종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음악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을 거쳐 2010년 출간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말한다. 다음 <표 1>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출판사별, 저자별로 분류한 내용이다.

<표 1>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목록

번호	출판사	저자
----	-----	----

1	교문사	전낙표, 신혜영, 이성은
2	교학사	이홍수, 유명국, 김일영
3	금성출판사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4	더텍스트	김미숙, 임강은, 이호경, 김혜선
5	미래엔컬처그룹	장기범, 송부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
6	박영사	주광식, 진태식, 채은영, 최은미
7	지학사	윤명원,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8	천재교육(민)	민은기, 신혜승, 김세중
9	천재교육(백)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10	태성	주대창, 정은경, 노혜정, 김동수
11	두산동아	최은식, 석문주, 권덕원, 황병운, 이은하, 강선영, 오지영, 송주현, 홍수민, 박종화
12	법문사	김정숙, 이성읍, 지종문, 정원경
13	성안당	정옥희, 이내선, 이희중, 박은정, 설창환, 이현창
14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15	태림출판사	조효임, 강민선, 양은주, 한태동
16	현대음악	윤경미, 장보윤, 관은순, 곽성원

위의 <표 1>의 내용은 개정판 음악교과서 16종을 출판사와 저자별로 분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천재교육(민)은 대표저자 민은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이며 천재교육(백)은 대표저자 백병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칭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 운동을 기폭제로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이 시작됨으로써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이상길 외, 2007). 다문화주의는 흔히들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subaltern)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뜻한다.

1) 다문화주의 개념

다문화는 ‘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로 혼합하여 번역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개념의 이해와 논의가 명확하지 않다(정하성 외, 2007).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학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 흑인, 비서구(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비주류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으로 소수 문화가 특정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소수집단의 고유문화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주의란 여러 민족, 인종, 집단들이 평등의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 존중함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주의이며,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의 논쟁적인 특성은 이처럼 다문화주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철학인가, 정치 지향인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상이한 제안인가)로부터 시작되어 각각의 입장 내부

의 차이로 확산·심화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길 외, 2007). 또한 ‘다문화사회’, ‘다문화 교육’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교육, 학계, 사회 운동, 정부 정책 등에서도 ‘다문화’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의 의미를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 성적 취향에 있어서 소수자가 있는 가정, 또는 빈곤층을 가리켜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최근에 장애, 연령, 성, 계층, 성적 취향 등이 한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맥락은 ‘다문화’보다는 ‘인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빨라지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다문화가 가리키는 의미의 범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한국적 맥락에서는 주로 다인종화, 다민족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 현상 다양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문화주의’를 정의할 수 있다(구정화 외, 2009).

2)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문화란 그 사회에서 행해지는 이상, 가치관, 틀과 사용되는 종류, 인생, 가치관 그리고 무의식이나 의식적으로 틀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같이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다. 즉 문화란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행해지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이다(Zeilfelder, 2007: 17). 따라서 문화는 개인과 집단,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는 인간과 집단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신념체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를 용어 그대로 정의하면 다양한 문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념체계, 문화적 다양성 등이 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문화적 다양성 교육 등으로 정의한다(김용신, 2008: 8).

다문화교육을 역사적 맥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하면, 아이디어 혹은 개념이며, 교육개혁 운동이고 과정이다. 이를 세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성별, 사회계층, 종족, 인종, 혹은 문화적 특성에 상관없이

학교에서의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아이디어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계층, 성별, 인종, 언어, 문화집단의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도록 학교와 다른 교육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개혁 운동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동등성을 끊임없이 증가시켜 나가야만 하는 진행 중인 과정이다(Banks & Banks, eds. 2007: 3-4). 즉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며, 동시에 소수자와 다수자의 공생,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교육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문화교육에서는 진위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Bennett(2009)는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가 다문화교육과정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둘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셋째,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 넷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다. 이들 네 가지 핵심 가치는 이상적인 것으로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도 않고 있다. 예컨대, 환경문제나 빈부격차, 테러 행위, 사형과 사법체계, 빈곤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 등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들은 ‘민주주의 이론’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에 강력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들은 교사로 하여금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을 보호하고 실천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들은 교사들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다문화교육은 시민의식교육과 심미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같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시민의 미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협동을 다문화교육에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상호 편견을 제거하고 다양한 문화의 약한 면뿐만 아

나라 강한 면을 지적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의 상호이해를 자극하고 상호 관대성을 부추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문화교육은 자신과 그러한 사회에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김선미 외, 2008: 34).

결국,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멀티컬처리즘(multi-culturalism)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문화는 다른 문화에 열려 있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모든 문화는 또 다른 어떤 문화의 일부가 되고, 개별 문화들은 또 다른 문화와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교류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영향에 대한 이해이다. 그리고 상호간의 문화이해의 방법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내가 소유하는 문화가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적인 문제, 즉, 교육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교육 개혁운동인 것이다.

2. 다문화음악교육

1)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개념은 엘리엇에 의해 체계화 된다. 엘리엇(Elliott, D. J. 1995).은 프랫(R. Pratte)의 다문화주의 모델에 근거해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개념을 여섯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인 ‘동화’는 서양 고전음악에 관한 배타적 연구로 서양 고전음악이 세계의 다른 음악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 ‘융화’는 제한된 민족음악 중 서양 고전음악 작곡가들에 의해 통합된 것만 다룬다. 세 번째 ‘열린사회’의 단계는 음악이 큰 사회적 그룹의 발전 상황에서만 개인적인 표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화적 유산과 음악적 전통은 무관하다. 네 번째, ‘편협한 다문화주의’는 교과과정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양식 전통이 추가된 지역의 문화 하

나 혹은 두 가지를 다룬다. 다섯 번째, ‘수정된 다문화주의’는 지역적 경제, 인종, 성, 종교에 의해 선별된 음악을 대조, 비교하며 문화적 차원에서 가르친다. 여섯째, ‘강력한 다문화주의’는 세계적 관점에서 음악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를 서양의 미학적 관점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심미적 음악교육은 음악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음악적인 개념과 소재를 다루는 음악교육이다. 심미적 음악교육을 주장한 리머(Reimer, B. 1989)는 그의 음악교육론에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양식, 다양한 종족의 음악이 중요함을 언급했으나 서양 예술음악이 보다 우주적이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엘리엇은 “가장 좋은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웨이 보우만(W. Bowman)도 “음악의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한 음악을 중심에 두고 있는 시야는 다문화주의적 시야라고 볼 수 없다. 여러 음악이 다 같이 중심에 있어야 진정한 다문화주의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심미적 음악교육처럼 단지 심미적이고 순수한 음악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차원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라는 넓은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

리타 클링거(Rita Klinger)는 ‘학생들은 종족 음악을 통하여 그 민족의 가치, 의식, 관습, 신화, 사회 규준 등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음악, 미술, 문학, 역사 등을 통하여 그 민족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 슈미드(Will Schmid)는 ‘다문화적 음악은 학생들에게 그 음악문화가 가진 가치를 전해 주는 바, 이러한 가치는 다른 과목의 학습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벨 영(Bell Young)은 다문화적 음악교육이 민족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수 갬블(Sue Gamble)은 다문화적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안토니 시거(Antony Seeger)는 음악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식하도록 해 주고 음악적 창의성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D. J. Elliot, 1995). 또한 권덕원(2000)은 필요성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 하였는데 첫째,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음악,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다문화주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이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어느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올바른 정체성을 공감하고 있을 때, 비로소 자립적인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만약 그 일에 실패한다면, 즉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지 못한 민족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에게 기대는 역사-다른 말로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셋째로, 음악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식하도록 해 준다(Seeger 1992: 29). 각 종족 음악들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브루노 네블과 그 외 저자들은 “각 사회는 각 문화에 어울리는 각각의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각 민족이 스스로 자기들의 음악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Nettl, et al. 1997: 5). 이 말은 각 민족 음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음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서로 같은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넷째로, 자기 고유의 음악 이해에 도움이 된다. 여러 종족 음악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 고유의 음악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국악만 아는 학생들보다는 중국음악, 인도음악, 인도네시아음악, 아프리카음악, 유럽의 민속음악, 미국 인디언들의 음악, 남미의 음악들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런 음악들 속에서 한국 음악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더 깊이 파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 더 증가하게 된다. 뱅크스는 “다문화주의 교육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anks 1997: 89). 다문화주의 교육이 소수 민족, 소수 민족의 문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그룹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다시 나 자신과 내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다문화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됨으로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에 뱅크스(Banks)는 다문화주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민족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측면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요를 배우는 과정 중 우리 종족 음악에 대한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런 것들로 인해 학습 중 창의성의 발달에 도움을 받게 된다.

결국 음악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세계의 음악의 이해를 통해 포괄적인 안목을 키워줌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3) 다문화 음악교육의 변천 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통해 다문화주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과정

시기	교과목표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교과내용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1차 (1955)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써 교양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	초	·우리나라의 가요를 들려준다.
		중	·각국의 민요와 민족, 음악, 민족 악기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고	·우리나라 음악과 각국의 민속음악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한다.
2차 (1963)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역사적으로 감상, 고찰하게 함으로써 감	초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노래 부르기

		중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
	상 능력을 길러 일상생활을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적이고 고상한 가곡과 민요 부르기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여러 민족의 생활, 풍속, 습관 등과 음악과의 관련성 고찰 ·자매 예술과의 관계 및 여러 민족 문화와 음악의 관련성 고찰
3차 (1974)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폭 넓게 이해시켜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	·민속적인 가락과 건설적인 가사의 노래 부르기
		중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체감, 이해한다.
		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적이고 훌륭한 가곡과 민요 부르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4차 (1981)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감상태도를 기른다.	중	·작곡가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고	·지역과 시대에 따른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른다.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감지한다.
5차 (1988)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인 감	초	·다른 나라 민요 부르기
		중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상태도를 기른다.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 체감, 이해하기
		고	·여러 지역과 시대에 따른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6차 (1992)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초	·여러 시대 및 지역의 음악에 대해 관심 가지기
		고	·종족음악 및 현대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7차 (1997)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초	·다양한 문화권의 곡을 부른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중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형식을 이해한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며 듣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형식을 이해한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른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며 듣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의 학문과 문화가 서양 중심이었음을 반성하고,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발달한 학문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음악교육의 분야에서도 국악은 물론, 비서구음악도 수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다문화적 음악교육론은 더 많은 교육가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다문화적 자료들이 추가되었다(권덕원, 2004).

3.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주의

1997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은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우리 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한 전통음악 교육,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교육,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를 개정 중점사항으로 하여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5개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따르는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과 교육의 목적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28)고 명시되어 있다.

1)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중학교 과정 음악교과 다문화주의 내용을 분석하면, 7학년부터 9학년에 이르기까지 활동부분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으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문화나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음악을 접해봄으로써 다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이 제

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다문화주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년 2월 28일).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이러한 세계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요소들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도덕과 교육에서는 세계화와 윤리문제, 다문화교육, 인권 등을 다루고 있고, 음악과에서는 한국 음악과 함께 세계 음악 문화의 이해력 증진을 다루고 있으며, 영어과에서는 영어를 국제어(global language)의 개념으로 보고 세계인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국제이해교육)을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이찬숙(2010)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철학 및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정의 방향은 음악의 역할 및 음악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제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변화된 내용은 학년별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반영하기 위해 학년별로 학습해야 할 문화권의 음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개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한국.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새 교육과정은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고, 음악의 생활화를 강조하

는 것과 더불어 세계 음악 문화의 이해력을 증진하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주연, 2008).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개정의 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내용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지도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에서 선정, 조직되었다(한국. 교육과학기술부 2008, 140).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다문화적 접근의 내용요소를 찾을 수는 없으나, 내용역영별 지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이해영역 지도 시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요소와 음악의 종류 및 역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라(교육인적자원부, 2007: 20)”고 제시하였다.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된 생활화영역의 목적은 “학교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창의적, 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58)”고 밝혔다. 중학교 과정에서 생활화 영역은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 내외의 음악행사에 참여하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다문화주의 요소로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이다. 이러한 활동은 음악의 개인적 미적경험의 목적뿐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상업적, 선업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3>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

구 분	제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 활동의 2개 영역 ·이해는 7개의 개념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개 영역 ·학년군별(3-4, 5-6, 7-9, 10학년)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이해, 생활화의 3개 영역 ·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내용 포함 ·이해는 음악개념, 악기, 악곡, 음악사,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등 포괄적인 내용 제시 ·생활화는 학교 내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년별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영역을 이해 앞에 제시하여 음악 활동의 중요성 강조 ·활동 영역에 표현하기의 내용을 추가하여 활동 내용의 범위를 확정 ·생활화 영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필수 내용 제시 ·국악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Ⅲ. 개정 중1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내용 분석

1.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 분류

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다문화음악의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를 분류하였다.

1) 제 7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아시아민요 수록곡 비교

<표 4> 제 7차 중학교 음악교과서 아시아 민요 수록곡

출판사	수록곡	악곡 수
태성	물에 비친 하늘	1
성안당	모리화, 내어머니	2
세광출판사	만리장성, 양거춤추세	2
천재교육	모리화	1
아침나라	모리화, 초원의 노래, 과수원, 어부, 강건너의 마을, 라쿠파티 가라바	6
두산	내어머니, 모리화, 풍년의 노래, 라사 사양계, 키클리춤, 별빛, 람베람베, 뱃노래, 과수원, 어부, 강 건너 마을, 라쿠바타카바	12
지학사	코끼리 바나나, 초원정가, 예뻐이 파이파이, 양거춤추세	4
교학연구사	수록곡 없음	0
동진	수록곡 없음	0

태성음악교과서에는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성안당 음악교과서에서는 중국민요 ‘모리화’와 인도네시아 민요인 ‘내 어머니’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천재교육교과서에서는 중국민요 ‘모리화, 만리장성, 초원정가, 방아노래’ 등이

제목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중국민요 ‘모리화’는 악보를 수록해 두고 있다. 세광음악출판사는 중국민요 ‘만리장성’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 추세’를 악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침나라교과서에서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초원의 노래’, 네팔의 민요 ‘과수원’, 싱가포르 민요 ‘어부’, 방글라데시의 민요 ‘강 건너 마을’, 인도의 성가 ‘라쿠파티 라가바’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두산 교과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민요 ‘내 어머니, 라사 사양계’, 중국 민요 ‘모리화’, 태국의 민요 ‘풍년의 노래, 별빛’, 파키스탄의 민요 ‘키클리 춤’, 말레이시아 민요 ‘람베 람베’, 미얀마의 민요 ‘뗏노래’, 네팔의 민요 ‘과수원’, 싱가포르의 민요 ‘어부’, 방글라데시의 민요 ‘강 건너의 마을’, 인도의 민요 ‘라쿠바타카바’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지학사 음악교과서에는 스리랑카의 민요 ‘코끼리 바나나’, 중국의 민요 ‘초원정가’, 필리핀민요 ‘예쁘이 타이따이’, 인도네시아의 민요 ‘양거춤 추세’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의 아시아 민요 수록곡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아시아 민요 수록곡

출판사	수록곡	악곡 수
(주)교문사	우스쿠다라, 모리화, 몽고의 밤노래,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	5
(주)교학사	밤의 노래, 가을축제, 코끼리코절, 물에 비친 하늘	4
(주)금성출판사	모리화, 봉가완솔로, 우스쿠다라, 꽃은 지고, 보름달, 벚꽃, 하마나길라	7
(주)더텍스트	무지개 자매, 축복 말씀을 나누세, 휴식, 반딧불아 오너라	4
(주)미래엔컬처그룹	안녕, 여름날, 소뭍꽃, 코끼리바나나, 달아달아, 모리화, 풍년의 노래, 아들이아	8
(주)박영사	모리화, 밤의노래, 알리산, 벚꽃, 라사사양계, 어린이들의	15

	축제, 꽃은지고, 람베람베, 찬말리찬, 페르시아시장에서, 안녕, 하바나길라, 소맥꽃, 우스쿠다라, 라가선율, 침밀밀	
(주)지학사	만리장성, 초원정가, 침밀밀, 봉가완솔로, 리디아빵보, 안녕, 예쁜이 타이타이, 코끼리바나나	8
(주)천재교육(민)	모리화, 풍년의 노래, 벚꽃, 몽골의 밤의 노래, 디왈리 노래	5
(주)천재교육(백)	모리화, 벚꽃, 봉가완 솔로, 버그네슈와라 기타, 하바나길라	5
태성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달아, 꽃은 지고, 벚꽃	
두산동아(주)	벚꽃, 초원의 노래, 경마대회, 우스쿠다라	
법문사	모리화, 벚꽃, 우스쿠다라, 소맥꽃, 달아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춤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	
성안당	내어머니, 줌갈리, 위스퀴다르, 달아달아, 찬말리찬,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밤의 노래, 아리산의 아가씨	
세광음악출판사	모리화, 벚꽃, 즐거운 축제	3
태림출판사	모리화, 꽃은 지고, 축제의 북, 연가, 침밀밀	5
현대음악	모리화, 벚꽃, 위스퀴타르, 디 디아 빠임보, 하바 나길라	5

교문사 교과서에는 터키의 민요 ‘우스쿠다라’, 중국의 민요 ‘모리화’, 몽고의 민요 ‘몽고의 밤의 노래’, 필리핀의 민요 ‘꽃은 지고’, 베트남의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교학사의 교과서에는 몽골의 민요 ‘밤의 노래’, 베트남의 민요 ‘가을 축제’, 일본의 민요 ‘코끼리코절’, 중국의 민요 ‘물에 비친 하늘’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인도네시아의 민요 ‘봉가완 솔로’, 터키의 민요 ‘우스쿠다라’, 필리핀의 민요 ‘꽃은 지고’, 태국의 민요 ‘보름달’, 일본의

민요 ‘사쿠라 사쿠라’, 이스라엘의 민요 ‘하바 나길라’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더텍스트의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무지개 자매’, 키르기스스탄의 민요 ‘축복 말씀 나누세’, 이스라엘 민요 ‘휴식’, 일본 민요 ‘반딧불아 오너라’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대한 교과서에는 이스라엘의 민요 ‘안녕’, 이란의 민요 ‘소맥꽃’, 스리랑카의 민요 ‘코끼리 바나나’, 일본의 민요 ‘달아달아’, 중국의 민요 ‘모리화’, 태국의 민요 ‘풍년의 노래’, 필리핀의 민요 ‘아들아’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박영사의 교과서에는 15곡의 아시아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민요 ‘모리화’, 몽고의 민요 ‘밤의 노래’, 대만의 민요 ‘알리산’, 일본의 민요 ‘벚꽃’, 인도네시아의 민요 ‘라사사양게’, 베트남의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 필리핀의 민요 ‘꽃은 지고’, 말레이시아의 민요 ‘람베 람베’, 싱가포르의 민요 ‘찬 밀라 찬’, 이스라엘의 민요 ‘하바나길라, 안녕’, 이란의 민요 ‘소맥꽃’, 터키의 민요 ‘우스쿠다라’, 인도네시아의 민요 ‘침밀밀’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지학사의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만리장성’, ‘초원정가’, 인도네시아의 민요 ‘침밀밀’, ‘붕가완 솔로’, 베트남 민요 ‘리 디아 빵 보’, 이스라엘의 민요 ‘안녕’, 필리핀 민요 ‘예쁘이 파이 파이’, 스리랑카 민요 ‘코끼리 바나나’가 제시되어 있다.

천재교육(민)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태국의 민요 ‘풍년의 노래’, 일본의 민요 ‘사쿠라’, 몽골의 민요 ‘몽골의 밤의 노래’, 인도의 민요 ‘디왈리 노래’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천재교육(백)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일본의 민요 ‘사쿠라’, 인도네시아의 민요 ‘붕가완 솔로’, 남인도의 민요 ‘버그네슈와라기타’, 이스라엘의 민요 ‘하바 나길라’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태성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물에 비친 하늘’, 이스라엘의 민요 ‘돌아가리’, 인도네시아의 민요 ‘달아달아’,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 일본의 민요 ‘벚꽃’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두산동아 교과서에는 일본의 민요 ‘벚꽃’, 중국의 민요 ‘초원의 노래’, 몽골의 민요 ‘경마대회’, 터키의 민요 ‘위스크다라’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법문사의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일본의 민요 ‘벚꽃’, 터키의 민요 ‘우스쿠다라’, 이란의 민요 ‘소맥꽃’, 인도의 민요 ‘달아 달아’, 몽골의 민요 ‘몽골의 밤의 노래’, 인도네시아의 민요 ‘양거춤 추세’, 필리핀의 민요 ‘꽃은 지고’, 베트남의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성안당의 교과서에는 인도네시아의 민요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민요 ‘춤갈리’, 터키의 민요 ‘위스퀴다르’, 인도의 민요 ‘달아달아’, 싱가포르의 민요 ‘찬 말리 찬’, 베트남의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민요 ‘몽골의 밤의 노래’, 대만의 민요 ‘아리산의 아가씨’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태림 교과서에는 중국 민요 ‘모리화’, 필리핀의 민요 ‘꽃은 지고’, 베트남의 민요 ‘축제의 북’, 뉴질랜드의 민요 ‘연가’, 인도네시아의 민요 ‘침밀밀’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현대음악 교과서에는 중국의 민요 ‘모리화’, 일본의 민요 ‘벚꽃’, 터키의 민요 ‘위스퀴다르’, 베트남의 민요 ‘리디아 뽀보’, 이스라엘의 민요 ‘하바 나길라’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이 수록되었던 곡은 중국의 ‘모리화’로 10개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그 다음은 일본의 ‘벚꽃’이 9회에 걸쳐 제시되었고 터키의 ‘우스쿠타라’가 8회, 베트남의 ‘가을 축제’가 7회, 중국의 ‘초원의 노래’, 필리핀의 ‘꽃은 지고’가 6회, 이스라엘의 ‘하바나길라’가 4회로 수록되었다. 그 외의 곡들은 3번 미만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 여러 문화권의 민속음악을 소개하더라도 아시아권 민요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의 음악이었으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민요의 수록곡은 현저히 적은 비중이다. 또한 제목만 소개된 경우도 많았다. 서양의 민요나, 중국, 일본의 일부 민요는 제재곡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외의 아시아권 민요에 대한 자료는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는 아시아권의 민요가 여러 지역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악보 및 전통악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제 7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의 경우 평균 3.11곡, 개정 7차 교과서 평균 6.25곡으로 약 2배 많은 곡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도연, 2010).

2) 교과서별 아시아 민요 수록국가

각 교과서에 제시된 아시아 민요의 국가별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분은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로 하고 각 지역을 국가로 세분화 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아시아 음악 현황

지역		교 문 사	교 학 사	금 성	더 텍 스트	미 두 래 엔 컬 쳐	미 박 영 사	법 문 사	성 안 당	세 광	지 학 사	천 재	천 재	태 림	태 성	현 대	계	
동 아 시 아	일본	2	1	2	1	1	1	1	1	1		1	1	1	1	2	18	
	중국	2	1	2	1	1		1	2	1	3	1	1			1	2	20
	대만							1	1									2
동남 아 시 아	말레이시 아							1										1
	베트남	1	1					1	1	1	1	1			1		1	9
	싱가포르							1	1									2
	인도네시 아			1				1	1	1		1		1	1		1	8
	타이			1								1						2
	필리핀	1		1				1	1		1			1	1			7
서남 아 시 아	이란						1	1	1									3
	이스라엘			1	1		1	1	1	1	1		1		1	1		10

	터키	1		1		1	1	1	1	1				1		1	9	
남부 아시아	스리랑카						1					1					2	
	인도								1	1			1	1		1	5	
중앙 아시아	몽골	1	1			1		1	1	1			1				7	
	키르기스 탄				1												1	
오세 아시아	뉴질랜드			1											1		2	
계	19	8	4	10	4	4	5	12	11	10	3	8	5	5	6	5	8	108

2. 활동·이해·생활화 영역의 내용 분석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활동·이해·생활화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활동영역으로는 노래 부르기, 표현하기, 악기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종 교과서에서 이해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제시된 것은 극소수이며 또한 과거의 교과서처럼 음악적인 개념 안에 음계·악곡을 이루는 구성화음·박자·주요리듬 순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악곡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 악곡과 관련된 악기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교과서는 출판사마다 학습요소를 제시한 것이 보다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생활화 영역의 학습내용분포를 분석해보면 ‘학교내외에서 토론하기’ 즉 제재곡에 따른 마무리 학습으로, 제재곡과 같은 국가의 곡이나 아님 다른 나라의 곡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이유진: 2010) 이 장에서는 7학년 과정 음악교과서를 출판사 별로 분류하여 실제 수업에서의 아시아 음악이 얼마나 다양한 영역으로 학습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문사

교문사 학습체계로는 총 7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생각의 싹’에서는 각 단원마다 새로운 학습 내용을 접하기에 앞서 단원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나 악곡에 얽힌 일화를 읽으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내용 전개와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두 번째, ‘무엇을 공부할까요?’ 부분에서는 각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방향을 이해하고 학습의 목표를 갖도록 하였고 세 번째, ‘먼저 익히기’로는 각 단원을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선행 학습적 요소를 제시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하는데 있다. 네 번째, ‘배워봅시다’는 각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증점적인 학습 활동을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 ‘하나 더 알기’는 학습 활동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배운 악곡과 관련된 기악 연주나 그 외의 음악적 지식을 높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도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음악 놀이마당’에서는 단원 학습 요소를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유도하여, 우리 주변의 음악적 요소들을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원의 열매 맺기’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배운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낙표 외, 2010).

교문사의 아시아 음악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80쪽 부터 83쪽 까지로 전래 동요 ‘새장의 작은 새’가 주제재곡으로 수록되었으며 민요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학습목표를 세움으로 우리나라, 일본, 몽골, 독일, 이탈리아 민요의 간단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익히기 부분으로는 한·중·일 민요 삼국지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민요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들을 서술하였고 주제재곡에 대한 형식구조의 파악과 일본어로 부를 수 있게 일본어 원어를 한글로 표기했다. 음악 놀이마당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전래동요로 잘 못 알려진 대표 곡 4곡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고, 터키 민요 “우스쿠다라”, 중국 민요 “모리화”, 몽골 민요 “몽고의 밤 노래”,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 베트남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 등 총 5곡의 아시아 민요가 수록되었다. 각 곡마다 짧은 해설이 되어있고 베트남과 몽골 민요를 제외한 3곡은 한글원어와 한글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제시한 학습목표와 다르게 ‘표현하기’의 요소가 언급되지 않았으

며 주 제재곡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음악들은 단순히 참고 곡으로 제시되었다. 이해 영역으로는 주제재곡의 음계 및 형식을 알게 함으로써 참고곡인 민요 5곡이 수록되어 각 곡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생활화영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전해진 곡을 예로 옆 친구와 토론하기를 제시하였다.

2) 교학사

교학서 음악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단원의 학습 안내, 구체적으로는 단원 설정의 배경과 단원의 목표와 학습 악곡, 학습 내용(활동/ 이해/ 생활화/ 익히기)과 탐색 내상 및 내용이 제시되어있고 학습 악곡 및 학습 활동에서는 주된 학습 악곡 및 관련 악곡의 악보와 악곡의 특징 살펴보기와 다양한 활동(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하기)과 ‘이해’해야 할 학습 내용과 ‘생활화’를 위한 학습 내용과 그 밖의 참고 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심화 활동, 단원 정리 및 평가, 익히기로는 학습한 것을 심화하는 활동과 단원 학습을 정리, 평가하기,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보고부르기/ 익혀 연주하기 등)을 익히기 위한 방법과 과제, 연습곡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각 단원은 여러 곡의 학습 악곡들과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들의 통합적인 학습 체제로 꾸며졌으며, 이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학습 악곡 (주된 학습 악곡/ 관련 학습 악곡)에서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음악 경험과 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곡의 학습 악곡들을 수록하였다. 주된 학습 악곡을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가운데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악곡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이어서 그러한 경험 및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악곡들을 폭넓게 경험하도록 한다. 두 번째 통합적인 학습 체제 (중심 활동/ 부수 활동)에서는 ‘활동’, ‘이해’, ‘생활화’의 각 영역을 상호 관련 속에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음악 경험과 학습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심 활동을 통하여 음악 표현 및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며, 이해해야 할 내용을 학습하고 음악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새롭게 가지며, 이어서 그러한 활동들에 관련도 다양한 부수적인 활동들을 폭넓게 경험하도록 한다(이홍수 외, 2010).

교과서에서 아시아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52쪽부터 53쪽으로 활동영역에서 소단

원에 아시아 음악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악곡마다 전통악기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한글원어가 포함되지 않고 해석부분으로만 가사가 표기되어 아쉬웠다. 또, 단원의 특성상 우리나라부터 서양의 유명 작곡가들의 곡들과 관현악 악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놓은 부분에 비해 아시아 악곡에 대한 설명은 전통악기에 대한 부분이 전부였는데 서양음악 해설처럼 아시아 곡들도 자세한 설명과 악곡의 제시 또는 악기의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3) 금성출판사

금성교과서의 학습체계로는 단원구성과 내용 선정, 마무리의 세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단원구성에서는 교과서를 전체 8단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선정에서는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재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제공하여 통합 교육이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소중한 우리 음악’ 단원을 통해 살아있는 유산인 전통 음악을 쉽고, 새롭게 설명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양 음악사를 만화 형식으로 설명하여, 음악의 거장들을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나라의 노래는 원 가사와 우리말 독음, 번역 가사로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이론을 따로 제시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무리로는 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억에 남는 내용을 직접 적어 보도록 하였다. (양종모 외, 2010) 활동영역으로 분석하여 보자면 단원 3에서 아시아 음악을 집중적으로 분석 하였고, 제재곡과 참고곡 모두 한글원어와 한글 해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재곡과 관련된 곡을 감상하는 활동과 직접 연주를 하는 창작활동 부분이 있었다. 이해부분으로는 제재곡 2곡의 전통악기 그림이 수록되어 있었고 특징을 설명하였다.

4) 더텍스트

더텍스트의 교과서 구성으로는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악곡 길잡이, 음악 이야기, 음

악의 생활화, 창작, 음악사, 감상 등 총 8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학습 목표에서는 악곡을 통해 익혀야 할 주요 개념을 알기 쉽게 제시하였고, 학습 활동에서는 학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제시하였다. 악곡 길잡이에서는 악곡과 관련된 해설을 제시하여 악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음악 이야기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수록하여 음악에 흥미를 느끼게 하였다. 음악의 생활화에서는 음악 활동을 통해 습득한 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에 적용·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작부문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음악적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음악사에서는 서양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의 흐름을 알아보고, 각 시대의 음악을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감상 부문에서는 악곡을 통하여 포괄적인 감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김미숙 외, 2010). 생활하기 영역으로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서 음악과 관련된 책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자’라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5) 미래엔 컬처그룹

미래엔 컬처그룹 음악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으로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국악 배우기’, ‘감상하기’의 다섯 가지 영역을 ‘활동’, ‘이해’, ‘생활화’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단원은 주제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학습 요소를 살펴보면 참고자료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을 보충 또는 설명하였으며, 선택 학습에서 학습 내용의 깊이 있는 이해와 발전,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생활 속의 음악에서는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각해보기를 통해 감상 영역의 심화 학습 형태로 학습 내용의 이해와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 평가하기는 활동과 관련된 평가 및 문제 제시를 통하여 학습 성과가 정리 및 응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범 외, 2010) 이해영역으로 제제곡의 사용된 음계를 나타낸 오선악보와 아시아의 국가를 지도로 나타내어 각 국 민요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6) 박영사

박영사의 음악교과서는 구성과 특징으로는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면밀히 분석하여 교과와 시대의 변화, 1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단원을 구성하였고 인쇄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목표에서는 각 단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단원 목표를 학생의 개인차와 발달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목표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활동부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학습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리 및 평가로는 학습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리 및 평가'를 통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팁'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팁'은 용어 해설, 탐구 과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만화와 그림, 멀티미디어의 활용으로 세대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실적인 내용보다는 만화와 그림,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실용성과 유용성을 겸한 악곡으로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악곡을 많이 선정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생활에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열린 교과서 부분에서는 개별 학습, 소집단 학습 등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재구성성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주광식 외, 2010).

교과서에서의 아시아 악곡의 제시는 20쪽부터 32쪽으로 비교적 많은 부분에 해당하고 주제재곡과 함께 제시한 참고곡들의 한글 원어로 부를 수 있게 표기해 놓은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대륙별로 나누어 다양한 악곡을 제시하였고 특히 서아시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라는 관현악곡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민족의 정서를 표현한

곡을 감상하는 수업이 제시되었다. 이해하기 영역으로 지역 및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구분을 하였고 많은 곡의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제시하였다.

7) 지학사

지학사의 음악교과서의 구성으로는 새 교육 과정에 따라 각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었으며, 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생활 속으로’라는 부분을 따로 명시하여 실생활 속에서의 적용·활용을 강조하였고, 놀이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곡 관련 개념이나 용어 풀이, 기호·명칭 설명, 음악 기초 이론, 심화 학습, 자기 평가 등의 내용을 아이콘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11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기초다지기를 통해 음악의 전 영역에 기초가 되는 음자리표, 음표와 쉼표, 변화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려볼 수 있도록 오선 악보를 실었다. 제재곡 관련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 요소를 이해하고 익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음악 감상을 통해 폭넓은 감상을 위해 다양한 곡과 이해 요소를 실었다. 기악 연주 부분에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 연주법과 연습곡을 실었고 지휘 연습에서는 학생이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휘법과 연습곡을 제시하였다. 작곡 연습 부분을 통해 스스로 곡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작곡 과정과 실제 연습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음악에 맞춰 춤추기에서는 제재곡에 맞추어 춤추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설명과 함께 실었다. 또 음악적 소재로 연기해 보기를 통해 제재곡을 연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대사를 실었고, 즐거운 놀이 학습을 통해 교과서 용어나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재미있는 놀이 형태로 제시하였다. 기악 합주를 위해 총보를 실었으며, 합창 연습을 위한 곡을 반주보와 함께 실었다(윤명원 외, 2010). 생활화 영역으로 ‘아시아의 속한 나라의 음악을 감상하거나 불러보고 그 느낌을 말해보자’라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기와 토론하기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민속 악기를 담은 우표를 찾아보자’라는 제시로 생활화를 실현 하도록 하였다.

8) 천재교육(민)

천재교육의 음악교과서는 총 세부분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별 주제 중심의 교과서로 각 단원별 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악곡과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음악의 즐거움을 알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감상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생활화에 중점을 둔 친근한 교과서로 친근감 있고 다양한 실생활 관련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민은기 외, 2010)

9) 천재교육(백)

천재교육 음악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으로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악곡을 제시하여 풍부한 음악적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의 기본 능력을 충분히 익히고, 학생 각자가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제별 묶음 형식을 도입하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충실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연계 학습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사진 자료와 삽화를 제시하여 내용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백병동 외, 2010) 또한 아시아별 대표적인 곡과 악기를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민요들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10) 태성출판사

태성 음악교과서의 구성과 활용으로는 주제별 단원 묶음, 즉 월별로 음악의 활용을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색으로 구분하였고, 활동유형 안내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 유형을 아이콘과 번호로 표시하였다. 더해보기는 단원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심화시켜 해 볼 수 있는 활동 부분이고 다지기는 전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주대창 외, 2010)

11) 두산동아

제재곡 4곡이 제시되었으며 각 나라의 민요마다 축제·악기·전통의상과 유적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것을 활동영역과 관련지어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음악은 노래를 부르면서 민속춤을 주는 활동을 제시하여 ‘표현하기’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흥미 유발 활동위주로 제시하였다. 이해영역으로는 학습 목표를 따로 두고 각국의 민속 악기 그림을 제시하였다.

12) 법문사

법문사 음악교과서의 구성은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뉘어 활동부분에서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각 영역이 통합적으로 수업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해 부분에서는 1학년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위하여 이해라는 영역을 따로 구성하였다. 생활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창의적·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구성하였다. 또 도움자료에서는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참고곡 에서는 각 단원의 제목과 관련된 곡을 선정하여 제재곡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불러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원의 마무리를 통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부록 부분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이론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김정숙 외, 2010). 이해하기 영역으로는 제재곡의 음계를 제시하고 아시아의 민속 악기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설명함으로 여러 국가의 민요와 관련된 다른 악곡이 소개되었다. 생활화 영역을 따로 모듈별 학습으로 제시하여 다른 나라 악곡과 우리나라의 곡을 비교해보는 학습내용을 제시하였다.

13) 성안당

성안당 음악교과서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연계하여 중학교 수준에 맞도록 단원의 내용을 선정하고 서양 음악, 전통 음악, 아시아 음악, 생활 음악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악곡을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원은 영역별 특성에 맞게 10단원으로 크게는 서양 음악, 전통 음악, 아시아 음악, 생활 음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단원은 ‘단원을 열며’로 시작하여 단원의 목표와 주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도입부를 만화로 전개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단원은 활동, 이해, 생활화를 서로 연계하여 표현하기, 이해하기, 노래 부르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연주하기 등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원별 학습 활동은 학습 요점, 생각하기, 알아보기, 나아가기, 탐구 활동, 생활 속의 음악 등의 순서로 구성하여 단계적인 학습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학업 성취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보충,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단원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하기, 음악 산책, 도움말, 자료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등의 코너를 두어 보충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별로 단원 평가하기를 두어 단원을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옥희 외, 2010) 이해영역으로 제재곡의 음계와 전통 악기를 그림으로 수록하였고 중국과 우리나라 악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심화활동을 제시하였다.

14) 세광음악

세광 음악교과서의 구성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의 활용’ 등 영역별로 길라잡이와 함께 구성하였다. 또 각 영역의 길라잡이를 통해 각 영역별 음악 학습의 기본 방향과 함께 제재를 제시하였고 각 영역의 각 제재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제재를 선택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생활화 하도록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될 사항은 tip으로 제시하였다. 학습 평가는 각 영역별 통합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현장에서 선택·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특성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서 선택·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각 영역에서 관련 사이트, 자료, 학습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음악 학습은 실음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허화병 외, 2010).

아시아 민요에 해당하는 부분은 44쪽부터 47쪽으로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국기를 수록한 뒤 음악적인 특징을 민요와 관련되어 제시하고 이해영역으로 특정 국가의 민속 악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글 해석만 표기되어 원어로 부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15) 태림출판사

태림 음악교과서는 본문에 아이콘을 사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의 종류를 쉽게 구별하도록 하였으며 크게 노래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이해하기, 활동하기로 분류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각 단원의 첫 머리에 단원의 주제와 악곡, 그리고 학습 활동을 한 눈에 보이도록 하였으며, 음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클릭클릭’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인 탐구 학습과 모둠 과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한 걸음 더’를 통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효임 외: 2010). 특별한 악곡의 특징이나 형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짧은 글로 악곡의 리듬적 특징 및 음계형태를 이해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생활화 영역으로 필리핀 노래와 전래 놀이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흥미 유발을 하였고,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악기를 만들어 즉흥연주를 하게하는 창작요소까지 더해진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16) 현대

현대 음악교과서의 구성은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요, 음악으로 우리 문화를 만나요, 음악으로 하나가 돼요,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음악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음악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음악으로 흥겨워져요, 음악으로 즐거워져요 등 총 8개의 구성으로 체제화 되어있다(윤경미 외, 2010). 교과서의 내용 중 아시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39쪽으로 46쪽으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학습목표제시와 각 악곡의 설명, 또 나라별 기악, 춤, 극음악 등을 수록함으로써 아시아 문화권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였다.

IV. 개정 중1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음악 지도방안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을 네 가지 학습 모형을 사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방안은 국가별로 선정된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1차시 구성의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1.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의 네 가지 학습모형

방금주, 김용희(2008)은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인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해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평등, 자유와 정의의 가치 추구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네 가지 기본적 학습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네 가지 학습모형은 통합학습 모형, 맥락학습 모형, 조사학습 모형, 정의적 학습 모형이다.

본 연구자는 네 가지 학습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과 다른 과목의 접목으로 흥미 유발을 일으키고, 그들 스스로가 다른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를 조사하고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 또한 이해하며 비교해봄으로써 더욱더 가치있게 여기길 바라며 구체적인 이론 방법의 제시로 네 가지 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1) 통합학습 모형

통합학습 모형(Interdisciplinary Learning)에서는 주제나 이슈를 학습하기 위해 하나 이상 교과와 방법과 어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교과들을 연결하는 축은 개념·원리·기능·태도·작업 등이다. 즉 다양한 교과들 사이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통합학습은 교과별로 상호 관련되는 내용을 묶어 가르치므로 한 가지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갈래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극음악에 대하여 목표를 세웠을 때 경극에 대해 알아보며, 중국 전통 춤을 함께 배워봄으로써 음악과 무용을 동시에 학습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극음악의 개념과 경극의 표현을 직접 따라해보는 동시에 통합학습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2) 맥락학습 모형

맥락학습 모형(Contextual Learning)의 전제는 학습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맥락학습은 관념적 학습이 아니라 학습의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의 ‘맥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습은 곧 실행을 의미한다. 실제 상황 혹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 안에서 학습자는 직접 경험하고 발견한다.

맥락학습의 교수 · 학습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① 관련 : 새로운 지식과 사전 지식의 관련
- ② 경험 : 직접적 경험과 교사의 설명
- ③ 적용 : 지식의 실생활 적용
- ④ 협동 : 지식 강화를 위한 집단적 문제해결
- ⑤ 전이 : 학습 지식의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맥락학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체적 교수 · 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제 세계적 상황의 역할극
- ② 다른 문화에의 침투를 포함한 현장학습
- ③ 인턴쉽(internship)과 같은 직업훈련

다문화 음악교육에서 주로 사용할 맥락학습의 방법은 역할극 혹은 역할놀이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발달과정과 음악적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역할극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역할극은 교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작은 연극과 유사하다. 기본 아이디어와 관련된 장면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하게 하거나 즉석 연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세계와 유사한 상황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극을 통하여 학습자는 세상의 다문화적 상황과 사람

들의 마음·감정·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문화적 상황은 현재 우리의 삶과 문화 안에서 발생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음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안목을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지 탐구한다.

3) 조사학습 모형

조사학습 혹은 탐구학습(Inquiry Learning)에서의 조사 혹은 탐구란 질문에 의한 정보의 추구를 말한다. 조사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창출하거나 혹은 교수가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대답을 조사한다. 따라서 조사학습은 학습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습을 말한다. 조사학습에서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다루고 경험하는 점에서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학습, 비판적 사고, 귀납적 교수법, 발견 학습’ 등과 공통점을 가진다.

조사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학습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다. 인터넷을 사용한 조사학습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학습 자료에 언제든지 근접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학습 모형이 사용된 내용은 주제와 관련된 배경적 지식, 즉 다문화 음악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구, 혹은 작품에서 발견되는 전반적인 음악적 특징, 음악양식의 비교, 음악의 조직적 원리 등과 같은 포괄적 주제다.

4) 정의적 학습모형

정의적 학습(Affective Learning)은 바람직한 사회는 ‘수용적 사회’라고 전제하고, 이 수용적 사회 건설은 학급교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용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단체의 구성원이라고 느끼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정의적 학습은 수용적 사회가 교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 세계로 퍼질 것을 의도한다.

정의적 학습모형은 다른 문화·인종·신념에 대한 존중, 자신과 타인의 가치 인정, 성·능력의 평등 존중,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능력, 열린 마음 등을 포함한다.

유엔 인권센터는 정의적 학습을 위한 체계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한다.
- ②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술한다.
- ③ 해결 방법의 범위를 탐색한다.
- ④ 이 해결 방안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 ⑤ 행동 방향을 선택한다.
- ⑥ 선택된 행동을 실행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종주의나 차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 교사는 차별 받는 학생들의 공포나 혼란에 대하여 보여주며,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차별하는 학생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다.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에서 정의적 학습 모형은 역할극,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다문화 음악교육을 적용한 음악수업 지도안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은 각 나라의 음악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닌, 먼저 그 음악이 발생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들의 음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영역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음악을 학습한 후 우리나라 문화와 비교하는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문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이유진, 2010).

이에 본 장에서는 현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실에 대한 음악적으로의 이해를 위해 각 나라별로 그들의 문화와 음악을 살펴보며 전통악기의 사용법과 전통리듬을 알아보고 나아가 다문화 음악교육을 적용한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입헌 군주국. 일본 열도를 이루는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그 부속 도서(島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1867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자본주의적 군주 국가로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농업과 공업, 전자 산업이 발달하여 경제 수준이 높으며, 일본어를 사용하고 한자와 가나를 쓴다. 수도는 도쿄이다.

좁은 의미로는 메이지유신 이후에 유입된 서양음악을 제외한 일본의 민족적인 고유음악을 말한다. 일본음악은 한국음악과 같이 전통음악과 양악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일본에는 한국의 삼국시대 음악이 전수되기 전에도 일본 고유의 음악이 있었으나 문헌의 빈곤으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5~9세기에 걸쳐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대륙계의 국제음악이 유입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라·백제·고구려 등,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국제화한 한국의 가무(歌舞)가 처음으로 일본에 전하여져 일본의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612년에는 백제의 미마지(未摩之:미사시)가 오락(娛樂) 즉, 기악(伎樂)을 전수하는 한편 사쿠라이(櫻井:지금의 大阪 부근)에서 일본 소년들에게 가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8세기경에는 당악(唐樂)·불교음악 등이 유입되어 악기·이론·악곡·교육법 등의 여러 면에서 일본의 원시적인 음악문화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그러나 9세기 중엽에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기울어지면서 외래음악·악기 등에 대한 일대혁신이 단행되어 킨(琴:중국의 7현금)·시라기고토(新羅琴) 등의 악기가 폐지되고 선법(旋法)도 이론상으로 통일정리되어 새로운 악곡을 창작하였다.

한편 불교음악은 계속 전승되어 후일의 헤이쿄쿠(平曲)와 노가쿠(能樂)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후 궁정 귀족이 몰락하고 분권적 봉건사회의 무사계급(武士階

級)이 득세하자 가가쿠(雅樂)는 그 형식만이 남게 되고, 대신 전국시대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문벌(門閥)에 대한 설화체의 음악이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곧 헤이쿄쿠이다. 16세기 후반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류큐열도(琉球列島)로부터 샤미센(三味線)이 수입되고 그리스도교음악도 함께 들어왔으며, 민속설화음악 조루리(淨瑠璃)가 새롭게 등장해 후에 가부키(歌舞伎) · 난교조루리(人形淨瑠璃)의 기반을 닦는 등, 매우 다양한 한 시대를 이루었다. 이 중 그리스도교 음악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금지령(1587)에 이은 에도시대의 탄압으로 거의 없어져 버렸다. 샤미센음악과 이 무렵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히토요리기리(一節切) · 샤쿠하치가쿠(尺八樂) 등은 민간음악으로서 크게 유행하여 소쿄쿠(箏曲)와 함께 에도시대 음악의 중요한 모체가 되었다. 에도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쇄국주의의 영향으로 외국과의 교류는 막히고 대신 일본의 독자적인 음악이 크게 성행하여 갔다.

18세기는 보력연간(寶曆年間:1751~1764)을 정점으로 샤미센 음악과 소쿄쿠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음악동향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철저한 서정적 표현을 그 생리로 삼은 분고부시(豊後節)는 정사사건(情死事件)이 빈발하던 당시의 시류를 타서 그야말로 일대를 풍미한 통속가악이 되었으나 퇴폐풍조를 조장시킨다는 이유로 막부(幕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문정기(文政期:1804~1830)를 거쳐 바쿠후 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민속적 전통음악은 다양한 세분화와 변천을 거듭하였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전대(前代)의 각양각색의 음악을 보존 ·발전시켜 왔으나 양악의 급격한 물결에 밀려 일본의 전통음악은 큰 시련을 겪게 된다. 메이지시대에 접어들자 독일 사람 F.에케르트 등을 초빙, 군악대의 조직육성에 힘쓰고, 그 뒤 양악은 마침내 교육분야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메이지 2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전통음악은 교육분야에서 거의 밀려나게 되었다. 다이쇼(大正)로부터 쇼와(昭和)시대에 걸쳐서는 일본음악 문화의 주류가 거의 양악 쪽으로 옮겨져 이에 큰 자극을 받은 일각에서는 새로운 전통음악 창조의 기운이 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음악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각양각색의 음악이 생성 ·소멸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그 특색을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서양음

악에 침식된 일본의 전통음악을 되살리기 위하여 신일본 음악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음악을 외국에 소개하기도 하지만 큰 성과는 없으며 결국 일본음악도 세계음악 시대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doopedia 두산백과).

일본의 전통악기 샤미센(일본어: 三味線, シャミセン)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로 민요의 반주나 근세 일본 음악의 대부분의 종목에 사용된다. 3현의 발현악기로, 여러 종류의 음악 연주에 사용된다.



[그림 1] 일본의 전통악기 ‘샤미센’

샤쿠하치(尺八)는 관악기의 일종이다. 샤쿠하치의 지공(指孔)은 전부 다섯으로d, f, g, a, c, d의 6음을 내지만 실제 연주할 때는 한국 젓대같이 지공을 전부 막지 않고 반만 막는다든가 입술의 각도를 변화시켜 6음 이외의 음을 내며 고개를 흔들어서 비브라토를 낸다. 그렇게 음을 올리는 것을 가리라 하고 내리는 것을 메리라고 한다. 크레센도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음량(音量)뿐만 아니라 음빛깔(音色)의 변화를가져온다.



[그림 2] 일본의 관악기 샤쿠하치

<표 7 >일본 민요 ‘사쿠라’ 수업지도안

악곡명	벚꽃	차시	1/1	쪽수	현대음악: p.41	
대단원	4.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수업형태	전체 학습	
다문화 적학습 요소	1. 일본 민요의 특징과 일본 전통악기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일본민요의 독특한 음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1. 일본의 전통악기와 리듬을 알아보고 리듬치기 한다. 2. 제재곡을 통해 일본민요의 선율적 특징을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수업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결 확인을 한다.	·바르게 앉아 인사 및 출석에 답한다.	8분	ppt자 료	
	동기유발	·멀티미디어자료 제시로 일본 민요의 벚꽃 감상과 전통 악기 연주 동영상을 본다.	·동영상을 보면서 배울 곡 에 대한 학습목표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습목표 인지	·ppt자료에 제시된 학습목 표를 읽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읽으며 배울 수업 내용을 확인한다.			
전개	국가의 특징	·ppt자료를 활용하여 국 가의 특징을 설명한다	·ppt자료를 보면서 교사 의 설명을 듣는다.	3 0 분	ppt자료	
	악기의 특징	·ppt자료에 제시된 악기와 기 초 음계를 설명한다.	·ppt자료에 제시된 악기의 특 징을 살펴보고 제시곡의 구 성음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일본의 음계	·제재곡의 음계를 우리나라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라 음계와 비교 설명한다. -미야코부시 음계와 홍난파의 가곡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계에 대해 이해한다. 감상 후 느낀점을 말한다.		
	노래 부르기	·원어로 읽어보고 마디별로 나누어서 부르도록 한다.	·두 마디씩 나누어 원어가 가진 의미를 생각하며 불러본다.		피아노
	리듬치기	·책상이나 손뼉을 이용해 리듬치기를 한다.	·제시된 리듬을 리듬치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고, 노래와 함께 불러본다.		
정리	학습내용정리	·학습한 내용을 설명한다.	·본시 학습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시 이해한다.	7분	ppt자료
	차시예고 및 과제	·다음시간에 배우는 중국 민요 '모리화'에 대한 수업을 예고한다.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확인한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민요와 벗꽃, 악기 연주 동영상은 볼 때는 감상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준비한다. 이는 적절한 멀티미디어 제시는 좋으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집중도는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점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감상 후에는 학생들이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미야코부시 음계 지도 시, 우리가 트로트라고 흔히 알고 있는 노래가 일본 음계에 의한 음악이라는 것과, 홍난파의 가곡의 상당수가 미야코부시 음계를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설명하고 난 뒤 음악을 듣도록 지도한다. 리듬치기의 박자는 2박자 계통의 리듬 ‘쿵’, ‘ 짹’ 으로 알려준 뒤 ‘쿵’은 책상이나 손뼉을 이용해 크게 치도록 하고 ‘짹’은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로 박수치게 한 뒤, 제시 곡을 리듬치기로 부르도록 지도한다.

2) 중국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 황허(黃河)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으로, 전설적인 삼황(三皇)·오제(五帝) 시대를 시작으로 하나라·은나라·주나라·춘추 전국 시대·진(秦)나라·한나라·삼국 시대·진(晉)나라·남북조 시대·수나라·당나라·오대(五代)·송나라·원나라·명나라·청나라를 거쳐 1912년에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그 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여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국민 정부는 대만으로 옮겼다. 광대한 영토에 농산물, 지하 자원 따위의 각종 자원이 풍부하다. 수도는 베이징이다.

중국음악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전설시대의 원시음악은 분명하지 않으나 BC 1500년경의 은왕조(殷王朝) 이래 전개된 금석병용기에는 이미 한민족의 음악문화가 싹터 천지의 신을 제사지내는 의식을 중심으로 경(磬)·훈(熏)·금(琴)·슬(瑟) 등의 악기가 나타났다. 다음의 주왕조(周王朝) 때는 다시 종(鐘)·笙(笙)·소(簫) 등 많은 악기가 제작되고,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5성(五聲)이나 황종(黃鐘)에서 응종(應鐘)에 이르는 12반음인 12율(十二律)을 산출하는 이론도 발견되고, 유교의 예악(禮樂)사상 속에서 음악이 중요시되었다. 한(漢)의 통일왕조(BC 2세기 ~ AD 2세기)에는 유교가 국교가 되어 주나라 이래의 천지·조상을 제사지내는 아악(雅樂)제도가 궁정에 확립되고 한민족의 고유 음악시대의 정점을 이루어 공자가 편집한 주시대의 민요를 집대성한 《시경(詩經)》과 양쯔강[揚子江]지방의 가요를 모은 《초사(楚辭)》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대(漢代)에 서역을 통해서 서아시아와의 실크로드가 열리자 서방의 문물에 섞여 비파(琵琶)와 하프인 공후(箜篌) 등이 이란방면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방음악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6세기의 남북조시대이며, 인도 불교의 유입에 수반해서 인도의 고대음악도 서역 사람들의 손으로 중개되었다. 많은 악기·악곡·무용·이론이 중국 궁정에까지 전하여져 7세기의 수(隋)와 7~9세기의 당(唐)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궁정과 국가의 예술음악이 꽃피게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유교의 아악에 대하여 외래악을 호악, 중국악을 속악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의 고대문화를 계승한 오대(五代)·송·원·명·청의 10~19세기는 한민족이 자

력으로 독자적인 음악을 전개한 시대로서 민족음악 시대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 중심은 서민 속에서 태어난 가극으로서 송대에는 잡극, 원대에는 원곡, 명대에는 곤곡이라 불렀고, 청대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의 경극이 완성되었다. 1911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의 중국음악의 근대화는 서양음악의 수입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후 민족의 전통음악과 결합시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음악은 국가·궁정·귀족 등 지배계급의 음악과 서민의 음악, 그 중간인 사인의 음악 등의 구별이 있었고, 유교의 예악사상에 바탕을 둔 의례음악과 즐기기를 위한 예술음악과의 구별이 있었으며, 중세 이래에는 극악·사설조 등의 성악이 많아졌다.

또 주나라 때부터 5성·7성(宮·商·角·變徵·徵·羽·變宮)이나 12율의 산정법(算定法)이 학문으로서 논의되었으나, 중세 이후에는 5음음계(도·레·미·솔·라)를 많이 써서 단선율적이 되고 리듬은 짝수 박자계의 뚜렷한 리듬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현존하는 여러 종류의 중국음악을 통해서 5음음계에 의거한 전형적인 중국풍 멜로디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표 8> 중국의 극음악 ‘패왕별희’ 수업지도안

악곡명	경극‘패왕별희’	차시	1/1	쪽수	현대음악: p.40	
대단원	4.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수업형태	전체 학습	
다문화 적학습 요소	경극을 통해 중국의 전통 춤과 극음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패왕별희’를 감상하고 중국의 전통 춤과, 음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수업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결 확인을 한다.	·바르게 앉아 인사 및 출석에 답한다.	8분	ppt자료
	동기유발	· '패왕별희' 를 보여준다.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목표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습목표 인지	·ppt자료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읽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읽으며 배울 수업 내용을 확인한다.		
전개	경극의 종류	·ppt자료를 활용하여 경극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	·ppt자료를 보면서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30분	ppt자료
	극음악의 특징	·ppt자료에 제시된 극음악에 대하여 설명한다.한국 일본 중국의 극음악의 특징에 대해 비교 설명한다.	·ppt자료에 제시된 극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점에 대해 말해본다.		
	경극 감상	·경극에 대해 각자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경극을 보고 극음악과 연기에 대해 느낀점을 말한다.		멀티 미디어
정리	학습내용정리	·학습한 내용을 설명한다.	·본시 학습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시 이해한다.	7분	ppt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	·다음시간에 배우는 중국 민요 '모리화'에 대한 수업예고한다.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확인한다.		

패왕별희는 1993년 중국의 베이징 필름 스튜디오(Beijing Film Studio)가 제작하였다. 첸카이거(陳凱歌)가 감독하고, 장궈룽(張國榮), 장풍의, 공리(鞏莉)가 출연하였다.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살아가는 두 경극배우의 인생역정을 그린 작품으로, 원작자 이백화가 각본을 맡았다.

경극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형제처럼 자란 데이(장궈룽)와 샬로(장풍의)

는 《패왕별희 霸王別姬》의 주인공을 맡아 일약 유명해진다.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한 1930년대 말, 샬로가 홍등가의 유명한 창녀 주산(공리)과 사랑에 빠지자 샬로에게 미묘한 감정을 가졌던 데이는 질투를 느낀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 데이는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당대의 세력가 원대인에게 몸을 맡긴다.

1945년 국민당이 집권하고, 일본군을 위해 노래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데이는 그의 연기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당 유력인사에 의해 풀려난다. 시대의 거친 흐름에 휩쓸리게 된 배우들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함께 비판대 위에 서게 되고, 데이는 결국 경극배우 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른다.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홍위병들에게 심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샬로는 데이의 동성에 전력을 폭로하고 데이는 이에 맞서 주산의 과거를 들추어낸다. 샬로는 주산마저도 배신하여 그녀를 자살로 이끌고, 데이 역시 마지막 경극 무대의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다.

극음악이란 일반적으로 극장풍의 연주형식을 가진 음악으로 넓은 뜻으로는 오라토리오·예수수난곡·교회칸타타 등과 같이 극적인 내용을 담은 음악을 가리킨다. 여기서 극장풍의 연주형식이라 함은 음악이 동작·미술·의상·조명을 포함한 무대와 대본과의 결합에 의해 연극에 음악적 분위기를 부여하여 음악적 내용을 높이는 경우를 이른다.

창극은 우리나라 고유의 극음악으로는 국악을 소재로 한다. 전통적인 판소리나 그 형식을 빌려 만든 가곡으로 여러 사람이 배역을 맡아 창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한다. 몸동작 보다는 소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드라마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대 장치가 사실적인 특징이 있고, 무대 밖에서 하는 마당놀이도 있다.

경극은 19세기 중엽 베이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전통 극으로, 14세기에 널리 성행했던 전통가극인 곤곡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창,영송,무용,곡예,무술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며, 창작 극본을 비롯하여 송, 원대의 역사와 전기, 민간에서 전해지는 신화와 소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연기는 힘이 넘치고 화려하며 곡예적인 몸놀림이 자주 사용된다. 독특한 창법, 화려한 분장과 의상이 돋보이며, 반주는 타

악기를 중심으로 현악기, 관악기, 작은 북 등으로 편성된 소규모의 악단이 맡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연극이다.



[그림 3] 중국의 경극 ‘패왕별희’

가부키는 일본의 대중적인 전통 극으로, 16세기 후반 오쿠니가 이끄는 유랑 여성 집단이 불교도들을 풍자해서 인기를 얻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오쿠니의 가부키는 천박하고 묘사가 대담하며 관능적이라는 이유로 1629년 정부에 의해 공연이 금지되었고, 17세기 중반에 성인 남자 배우들만으로 공연하는 정식 가부키가 나타났다. 가부키는 노래, 춤, 화려한 분장과 뛰어난 무대, 매우 양식화된 연기 등 볼거리가 풍부하여 꾸준한 인기를 누린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동영상의 제시가 필요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려져서 수업 분위기 또한 산만해 질 수 있으니 감상 후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또한 지나치게 동영상이나 자료제시에 의존하지 않게 지도하고, 수업 내용의 적절성에 맞는 질문과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 수업을 유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창극을 보고 비교해본다.

3) 인도네시아

태평양 서남쪽 말레이 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화국.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이며,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각 방면에 있어서 문화적·민족적인 교류와 이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1945년 네덜란드에서

독립하였다. 석유·주석·고무·니켈·목재 따위의 자원이 풍부하며, 주민은 대부분 말레이 인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다.

발리음악이라고도 한다. 이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가믈란(Gamelan)이라는 타악기를 주로 한 합주음악이다.



[그림 4] 인도의 가믈란 합주

가믈란에는 장조계(長調系)의 슬렌드로와 단조계의 펠로그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제전·연극·무용·가요 등의 반주에 쓰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시시대부터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타악기가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오늘날은 금속으로 바뀌어 금속악기를 중심으로 한 가믈란음악이 형성되었다.

<표 9>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 수업지도안

악곡명	분가완 솔로	차시	1/1	쪽수	천재교육: p.58
대단원	아시아 음악과 문화			수업형태	전체 학습
다문화 적학습 요소	1. 인도네시아 민요의 특징과 전통 악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전통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1. 전통음악 '가믈란'에 대해 알 수 있다. 2. 체재곡을 통해 인도네시아 민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학습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및

단계		교사	학생		유의점
도입	수업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결 확인을 한다.	·바르게 앉아 인사 및 출석에 답한다.	7분	멀티 미디어
	동기유발	·멀티미디어자료 제시로 인도 ·네시아 민요 감상과 전통 악기 연주 동영상을 본다.	·동영상을 보면서 배울 곡에 대한 학습목표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습목표 인지	·ppt자료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읽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읽으며 배울 수업 내용을 확인한다.		
전개	국가의 특징	·ppt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특징을 설명한다	·ppt자료를 보면서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30분	ppt자료
	노래 부르기	·원어로 읽어보고 마디별로 나누어서 부르도록한다.	·두 마디씩 나누어 원어가 가진 의미를 생각하며 불러본다.		피아노
	전통 축제의 종류	·ppt자료에 제시된 인도네시아 전통 축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ppt자료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ppt자료
	가물란의 특징	·가물란에 특징을 설명하고 연주되는 악기들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을 듣고 각자 느낀점에 대해 말하여본다.		
	우리나라 사물놀이와 비교	·우리나라 사물놀이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사물놀이와 가물란을 비교해보고 각 나라의 문화를 깊게 이해한다.		
정리	학습내용정리	·학습한 내용을 설명한다.	·본시 학습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시 이해한다.	8분	ppt자료

차시 예고 및 과제	·다음시간에 배우는 중국 민요 '모리화'에 대한 수업을 예고한다.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확인한다.	
------------	--------------------------------------	----------------------	--

대표적인 전통축제 중 첫번째로는 사원축제 (Odalan)가 있다.

발리 섬에는 20,000여개 이상의 사원이 있으므로 오달란은 가장 흔히 행해지는 행사 중의 하나이다. 발리력(Uku year: 1년-210일,1개월-35일,1년-6개월)에 따르면 이 행사는 1주일 내지 2주일만 발리에 묶는다면 한번 이상은 반드시 볼 수 있다. 행사의 규모는 사원의 중요도와 스폰서의 재력여하에 따라 틀려지고 각각 천차 만별이다. 마을의 남녀들은 깨끗이 목욕하고 단정하고 화려한 의상으로 제단을 쌓으며 대나무 깃대를 세우며 과일,떡,꽃 등으로 재물을 준비한다. 행사 당일은 허리띠, 머리에 우등을 두르며 무궁화과 계통의 붉은 꽃을 귀 뒤에 꽂고 여인들은 아주 높게 쌓은 재물을 머리에 이고 사원까지 행차한다. 오후 내내 제단에 산더미 같은 제물탑이 쌓여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밴드까지 동원되어 행진한다. 몇 시간동안 그 제물로 신들을 위한 향연을 벌인 다음 나머지 음식은 다시 집에 갖고 감으로써 신과 주민들 모두에게 축복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갈룽안(Galungan)은 힌두 최고의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의미의 행사로 매우 중요하다. 42일 동안 신성한 기간을 시작으로 발리력(Uku year) 11번째 주이기도 하다. 기원은 옛 고대 힌두 추수 감사제 풍습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만큼은 작물을 새로이 심는 것이 금지된다. 발리 힌두의 전설에 의하면 갈룽안은 Indra 신이 사람들을 도와 모든 악마중의 악마왕 Mayadanawa를 물리친 기념이라 한다. 행사준비는 약 1주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길가는 깨끗이 정리되어 대나무 기둥(Penjor)들이 탈곡되지 않은 벼와 꽃, 코코넛 열매 등을 매달아 놓은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힌두 최고의 신 상향(Sanghyang)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거의 모든 집들이 집 앞에 하나씩 세워 놓은 것이며 신이 주신 생명과 번영을 감사한다는 뜻이다. 거북이, 돼지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 도살되며 녹색 바나나 무

더기들이 가마솥에서 익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행사 당일 새벽에 오달란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멧을 내며 사원으로 행차한다. 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는 휴강하며 상점은 휴업한다. 행사중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끝은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꾸닝안(Kuningan)은 발리력에 따르면 갈롱안 10일 이후에 있는 날이며 휴일도 같이 끝난다. 발리에서 2번째로 중요한 행사날이며 갈롱안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꾸닝안이란 이름은 노란 쌀에서 유래(Kuning - 노란색)되었는데 조상들과 성자들을 기린다고 한다.

네페 (Nyepi)는 발리음력(Saka year)으로 3월말에서 4월초에 있는 날인데 발리의 설날이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진다. 모든 악들은 밤에 생기는 불빛이나 잡음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새해가 되기전에 조용함으로 인해 악마들을 쫓아버림으로 1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유래가 있다.

에카 다사 루드라 (Eka Dasa Rudra)는 200,000명 이상이 30개의 행사를 11주 동안 치르는 동안의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사가 된다. 전통에 따르면 이 행사는 100년에 한번씩 열린다. 이 행사의 목적은 선과 악의 대등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행사의 시작은 바닷가로 이르는 3일간의 행렬에서이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파도속에 제물을 집어 넣는데 주로 물소가 쓰이며 뿔에는 금박을 쌓고 다리에는 은으로 된 발찌를 그리고 목에는 돌을 매달아 던지는 것이다.

가믈란이란 인도네시아의 타악기 중심의 합주형태 및 그 악기들로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이 없으나, 16세기 무렵부터 청동으로 만든 공계(gong系)와 감방계(gambang系)가 합주악으로 편성되어 가믈란이란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봉(鼓棒)으로 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타브반이라고 하였다. 가믈란은 중부 자바의 소로·조그자라는 두 왕실에서 육성되어 왕실의 의식제전 및 연극·무용 등에 쓰여 왔다. 따라서 왕가에는 악사·배우·무용인 등의 양성기관이 있어 많은 젊은 남녀를 육성하였다.

가믈란의 연주는 평화로운 음악으로, 음악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판소리나 산조에서 느껴지는 비탄이나 걱정같은 격렬한 느낌이 없다. 또한 가믈란의

음악은 서양악기나 전통악기처럼 독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는것이 아닌 한 사람이 여러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별로 악기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 전통악기에 비유하자면 농악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초보자도 함께 어울려 음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연주할 수 있다.

지도 시에 가물란의 음악을 듣고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과, 각자 소리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준비하여 제시된 한 가지 리듬에 그룹별로 다른 리듬과 멜로디를 만들어 함께 연주해보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의 제시로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시키고, 소수의 수업 참여가 아닌 그룹별, 또는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인다.

VII. 결론 및 제언

오랫동안 단일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사회도 교통수단, 통신의 발달과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에 의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어섰고,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과의 삶의 터전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 교육은 그들의 삶과 문화의 이해를 위한 필수 과제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제 7학년 음악교과서를 바탕으로 수록되어있는 아시아 음악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교과서에 가장 많은 곡을 수록한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가장 많이 아시아 곡을 수록한 출판사는 박영사와 법문사로 집계되었다. 그 외 출판사들 중 여러 곡을 수록해 놓고 체계화 된 교과서도 많지만 대부분 제 7차 교육과정과 다름없는 민요곡들을 위주로 수록해 놓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수업할 수 있는 방법 제시는 부족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변화된 내용은 학년별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반영하기 위해 학년별로 학습해야 할 문화권의 음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내 특정 국가들의 민요가 집중되어 있거나, 제재곡으로 다루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악기와 전통 음악과 춤 등을 적용한 다문화권 이해를 돕는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문헌 연구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제 7차 교육 개정안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현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연구하여 악기를 통한 흥미유발과, 가장 수록이 많이 되어있는 일본·중국·베트남·이스라엘·인도네시아의 대표 제재곡을 선정하여 수업 지도안을 제시했다.

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현 음악교과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일본의 민요들 외 국가의 민요들이 제재곡으로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곡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인 부분과 민요의 특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다문화 관련 음악 학습 적용을 위해 민속춤과 악기의 연주 및 리듬 제시 등 멀티미디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안들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지도하는 교사가 다문화권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수업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언어적인 부분과 대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음악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수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 교과에서 다문화관련 음악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 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다문화 음악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문화 음악을 통하여 다양한 인종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를 가치있게 여기게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체육, 음악, 미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구정화 외 3인 (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권덕원 외 3인 (2008).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김도연 (2010). **다문화 가정시대의 음악교육을 위한 아시아 민요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 외 3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더텍스트.
- 김영순, 김선미 (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김용기 (2002).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에 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의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신 (2009). **다문화 교육론 서설**.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정숙 외 3인 (2010). **중학교 음악 1**. 파주: 범문사.
- 민은기 외 2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천재교육.
- 박창호 (2006). **세계의 민속음악**. 서울: 현암사.
- 방금주, 김용희 (2007). 네 가지 학습모형을 사용한 다문화 음악수업 지도방안 개발. **음악과 민족**, 33, 305-337.
- 백병동 외 4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천재교육.
- 변계원, 조효임 (2009). 다문화 음악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음악교육**, 9, 21-53.
- 설영인 (2005).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 민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종모 외 5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금성출판사.
- 오경석 외 10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 윤경미 외 3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현대음악 출판사.
- 윤명원 외 3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지학사.
- 윤정진 (2008).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현행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 세계민요 중심으로**. 미간

- 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길, 인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5), 58-83.
- 이유진 (2010).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아시아 음악 지도방안 연구 :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 (2008).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코시안(Kosian)의 문화정체성 함양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친숙 (2010).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영역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흥수 외 2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교학사.
- 장기범 외 4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미래엔컬처그룹.
- 전낙표 외 2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교문사.
- 정옥희 외 5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성안당.
- 정하성 외 3인 (2007). **다문화 청소년 이해론**. 서울: 양서원.
- 조효임 외 3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태림출판사.
- 주광식 외 3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박영사.
- 주대창 외 3인(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주대창, 조효임 (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II)-중등학교 중심으로. **음악논단**, 18, 43-72
- 최유주 (2008).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 세계민요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식 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두산동아.
- 한지선 (2008).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현희 (2008). **학교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 수용-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회병 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Banks, J. A., & Banks, C. A. M eds.(2007). *Multicultural Education*. NJ: John Wiley & Sons.
- Bennett, C. I. (2001). Genres of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2), 171-218.
- Martiniello, M (1997).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2002), 서울: 한울